

“새벽 통증 호소 하는 우리 아이 성장통 적극 대처해야”

건강 바로 알기 성장통

신준혁 수원청연한방병원 원장

아이를 키워본 사람이라면 새벽 시간 아이가 자다가 대성통곡을 하는 경험을 대부분 겪었을 것이다. 특히 아이가 팔다리가 아프다고 한다면 성장통을 한 번 의심해볼 수 있다. 성장통은 3~12세의 어린이에게는 일반적인 통증 증후이다.

통증의 강도와 지속시간은 소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나 전형적으로 양측 성이며 발열, 체중 감소, 출혈, 야간 발한 등의 전신적인 질환의 증상은 동반되지 않는다.

또한 안절부절함이 동반되지만 압통, 발적 또는 국소 부종이 동반되지 않고, 통증은 보행에 의해 유발되지 않으며, 다음날 아침이 되면 사라지는 통증에 해당한다. 즉, 성장통은 다른 심각한 질병과 관련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낮은 유년기에 해결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어린이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례들이 종종 있다.

◇하지불안증후군과 유사=이러한 성장통과 가장 혼동될 수 있는 질환으로는 하

3~12세 아동 주로 발생...통증 강도 달라 하지증후군과 혼돈
정확한 진단 필요...온열 마사지·스트레칭·추나요법 등 효과

지불안증후군이 있다. 다리를 움직이고자 하는 충동과 다리에 불편한 감각증상이 동반되는 질환으로 감별진단시 주의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진찰을 받도록 해야 한다.

성장통의 유병률은 연구에 따라 광범위한 결과를 보고되고 있다. 그 중 내적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부모 보고 설문지를 통해 호주 아동에서의 성장통의 유병률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성장통의 유병률은 36.9%이며, 성장통은 남아에 비해 여아에서 더 흔하게 나타났다.

성장통의 정확한 병인은 불명확하다. 일반적으로 성장통은 뼈, 신경, 그리고 그를 둘러싸고 있는 건이 빠르게 성장하는데 비해, 근육의 성장은 상대적으로 느리기 때문에 발생한다.

성장통이 성장하는 소아에서 발생하는 하지만 성장통이 발생하는 시기가 성장 급진기와 일치하지 않으며, 성장통의 부위와 성장이 일어나는 부위와 일치하지 않는다. 특히 성장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성장이 성장통의 유일한 원인은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그 외의 주된 병인으로는 해부학적 이상, 피로, 심리적 원인이 제시되었으며, 최근에는 낮은 통증의 역치, 과사용으로 인한 골밀도의 감소, 비타민 D의 부족 등이 제시되고 있다.

◇성장통의 치료=치료는 크게 비약물적 치료와 약물적 치료로 나눌 수 있다. 비약물적 치료는 통증 부위에 온열 자극을 가하거나 마사지를 일반적으로 사용하며 대퇴사두근, 햄스트링, 비복근, 가자미근의 근육 스트레칭이 도움이 된다.

약물적 치료는 통증을 제어하기 위한 진통제 복용이 일반적이며, 최근에는 비타민 D 보충제를 섭취하기도 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한의학에서는 성장통을 3세 이후 골격 발육이 신속해지고 활동량이 증가하게 되면서 원래 부족했던 신정(腎精)이 더욱 부족해져 뼈를 자양하지 못해 통증이 발생한다고 본다.

또한 소아에 따라 한사입락(寒邪入絡)형, 비위허약(脾胃虛弱)형, 기혈양허(氣血兩虛)형, 간혈부족(肝血不足)형 등으로 성장통의 병인병기를 구분하고 변증치료를



수원청연한방병원 신준혁 대표원장이 밤마다 다리 통증을 호소하는 남자 어린이를 진료하고 있다.

(수원청연한방병원 제공)

를 적용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약 내복, 한약 외용, 추나요법, 침 치료를 모두 활용해 한의학적 치료가 가능하다.

신준혁 수원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은

“성장통을 겪는 아이들 마다 통증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심하다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 보는 것이 좋다”며 “심하지 않더라도 새벽시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

게 되면 성장하는 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모의 지속적인 관찰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 교수진, ‘심전도로 보는 순환기 증례’ 발간

정명호 교수 등 18명 참여...“환자 사례 의료계 유익한 자료”
1998년부터 22년간 병원·학교 알림판에 게시한 퀴즈 모아

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 교수진이 환자 사례를 통한 퀴즈모음집인 ‘심전도로 보는 순환기 증례(대표저자 정명호 교수 사진 왼쪽)’를 출판했다.

이 책은 지난 1998년부터 22년 동안 전남대병원 환자들의 심전도 중 교육적이고 교훈이 될 수 있는 증례를 매달 전남대의과대학 알림판에 게시했던 증례를 모은 것

이다. 또한 지난 2019년 발간됐던 ‘증례로 보는 심전도’ 이후 새롭게 추가된 사례들도 담고 있다.

환자의 상태를 설명하고 심전도를 함께 읽어 진단명과 시술명 등을 물어보고, 이에 대한 정답과 해설을 제시함으로써 학생·전공의·간호사·의료기사와 전임의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급성 심근경색 증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전남대병원에서 발간한 만큼 전국 의료기관의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서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책자 출판에는 정명호 교수를 비롯해 정형기·조경훈·현대용·김형운·박혁진·김민철·조재영·이기흥·심두선·윤남식·윤현주·김계훈·박형욱·홍영준·김주환·안영근·조정관 교수 등 18명이 참여했다.

정명호 교수는 “환자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로 한 내용인 만큼 많은 의료 관계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유익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아울러 책자를 통해 임상심장학의 발전과정을 되돌아 보는 계기도 될 것이다”고 출판 소감을 밝혔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대 오계정 연구 교수, 정부 주관·참여 사업 선정

전남대학교 오계정 연구교수(생체의료 시험연구센터)가 교육부가 주관하는 ‘학문균형발전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오계정 교수는 ‘생체글라스를 활용한 새로운 지르코니아 분당 메카니즘 및 활용’이라는 과제로 이 사업에 뽑혔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오 교수는 올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3년간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이 사업은 생체소재를 활용한 지르코니아 분당의 새로운 메카니즘을 실현할 수 있는 제반 기술들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로 한다.

이와 함께 오계정 교수는 중소기업기술진흥지원사업에 주관하는 디딤돌창업 과제 지원 사업에 ‘전사선 경화기술 기반 고강도 치과 수복용 디지털 복합 블록 개발’이라는 과제로 2020년 1년간 참여한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오계정 교수

‘코로나19’로부터 아이들을 어떻게 지켜낼까

한국아동간호학회 학술대회
내달 9일 온라인 세미나 개최

‘코로나 19’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방안을 찾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한국아동간호학회(학회장 오상은 전남대 간호대 교수)는 오는 7월 9일 ‘신종감

염병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란 주제로 온라인 웹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학술대회에서는 김은경 질병관리본부 보건연구관이 ‘2020년 신종 감염병 발생현황 및 특징’에 대해, 박지선 서울대어린이병원 수간호사가 ‘어린이병원에서의 감염병 관리와 운영 사례’에 대해 발표하

다. 또 한수하 순천향대 교수가 ‘지역사회 현장(어린이집, 학교)에서 신종감염병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환경 구축’을 주제로 발표한 뒤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이번 하계학술대회는 생활방역 실천 차원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온라인 등록을 받아 접속하는 ‘웹 세미나’ 형태로 진

행된다.

오상은 학회장은 “최근 COVID-19의 산발적인 소집단 감염이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며 “올해 하계학술대회는 아동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주제로 진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세미나 문의는 한국아동간호학회(031-400-6925, http://www.childnursing.or.kr)로 문의하면 된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대병원 이현경 교수, 대한혈액학회 우수논문상 수상

전남대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과이현경 교수가 최근 대한혈액학회의 ‘2019 Blood Research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2019 Blood Research 우수논문상’은 통합혈액학술지인 ‘Blood Research’에 게재된 논문 중 SCI 저널에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에 수여되는 권위있는 상이다.

이번 수상 논문의 제목은 ‘소아청소년 이증표현형 급성백혈병 또는 계열모호 급성백혈병의 특징 및 치료 성적’이다.

이 논문은 매우 희귀한 형태인 이증표현형 급성백혈병에 대한 연구로 세포 유전학적 특징, 항암치료에 따른 반응 및 예후에 대해 고찰하고, 이로써 치료법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이현경 교수

손해보험협회

한 사람의 보험범죄 전국민의 경제부담

2016년 9월 30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날로 지능화되는 보험사기에 늘어나는 국민손실, 보험사기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보험사기, 반드시 적발됩니다.

MERITZ 메리츠화재 | 한화손해보험 | 롯데손해보험 | MG손해보험 | Heungkuk Fire & Marine Insurance | 삼성화재 | 현대해상 | KB손해보험 | 동부화재 | KOREAN RE | SGI서울보증 | AXA AXA | AIG | TheK손해보험 | NH손해보험